2019 미국 펀드시장 동향

※ 美 자산운용협회(ICI)의 2020 Investment Company Fact Book을 기초로 작성

2020년 6월 17일
국제부 이수연

주요 내용

Ⅰ. 2019 미국 펀드시장 동향

□1 **(2019 글로벌 펀드시장 동향)** '19년 세계 주식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글로벌 개방형 펀드 규모는 **54.9조 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채권형** 펀드에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

□2 **(미국 펀드시장 개요) 미국** 전체 펀드시장 순자산규모는 '19년 **26조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으며, **대형 운용사 집중** 현상 심화

□3 **(뮤추얼펀드 현황) MMF**로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며 '19년 **순유입**으로 **전환**했으며,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 **MMF를 제외**한 뮤추얼펀드에서는 **순유출** 발생

Ⅱ. 2019 미국 펀드시장 주요 트렌드

□1 **(인덱스 펀드 및 ETF 등 패시브 펀드의 꾸준한 성장)** ETF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19년 말 **전체 운용자산의 17%**를 차지했으며 SEC는 신규 **ETF룰** 도입을 통해 ETF **등록 절차 간소화**

□2 **(뮤추얼펀드는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중산층의 대표적 투자상품化)**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뮤추얼펀드 **개인투자자** 수는 **1억명**을 넘어섰으며, 노후자산 관리에 큰 관심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의 주요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음

□3 **(퇴직연금 비중 증가)** 뮤추얼펀드 보유 가구 중 **80% 이상**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은퇴자산에서 **IRA**와 **DC형** 퇴직연금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4 **(ESG 시장 확대)** ESG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한 뮤추얼펀드와 ETF 순자산규모는 '19년 말 **3,2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향후 3년간 **약 200개**의 ESG 펀드가 **신규 출시**되어 대규모 **자금 유입**을 이끌 것으로 예상

□5 **(운용보수 및 수수료 감소)**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 고전으로 **저비용 패시브 펀드**로 **자금**이 **이동**하며 펀드시장 전반에서 **운용보수 및 수수료 감소**

Ⅰ 2019 미국 펀드시장 동향

1 2019 글로벌 펀드시장 동향

□ **(개요)** ‘19년 글로벌 개방형 펀드* 순자산규모는 **주식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18년 말 대비 8.2조 달러 증가해 **54.9조 달러** 달성

* 개방형 펀드(regulated open-end fund)란 펀드의 설립·운용·공시 등과 관련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펀드를 의미하며 뮤추얼펀드, ETF, 기관투자자用 펀드(institutional fund) 등을 포함함 (ICI의 정의)

** ‘19년 미국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은 31%, 유럽은 24.6%,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9.7% 기록

○ 글로벌 개방형 펀드시장에서 **주식형 펀드**는 전체 순자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권형 및 혼합형 펀드는 각각 21%, MMF는 13%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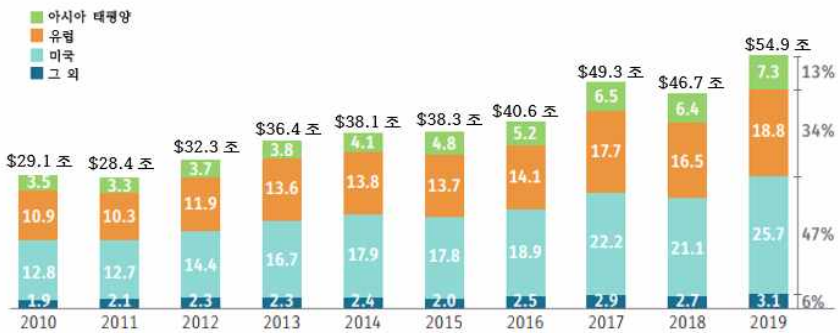
○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추세가 뚜렷해지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며 채권형 펀드에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 (比, ‘18년 2,430억 달러 순유입)

* 50세 이상 인구 비중은 ‘08년 전체 세계 인구의 20%에서 ‘19년 24%로 계속 증가

** 채권 수익률과 반비례 관계인 장기 금리는 4/4분기를 제외하고 크게 하락

□ **(글로벌 펀드시장內 미국의 비중)** 1920년대 뮤추얼펀드가 최초 출시되며 **일찍부터** 견고한 산업 시스템을 구축한 美 **펀드시장**은 투자자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세계 최대 펀드시장**(전체 시장 대비 47%)으로 자리매김

【 글로벌 개방형 펀드시장 】



자료 : IIFA

2 미국 펀드시장 개요

□ **(개요)** 미국 전체 펀드시장은 개방형·회사형 펀드인 **뮤추얼펀드**(mutual fund), **폐쇄형 펀드**(closed-end fund), **ETF**, **단위투자신탁**(Unit Investment Trusts, UIT)을 포함하며 '19년 순자산규모는 26조 수준(※헤지펀드 제외)

【 美 펀드시장 순자산규모 】

연도	뮤추얼펀드	폐쇄형 펀드	ETF	UIT	합계
2018	17,710	251	3,371	70	21,402
2019	21,292	278	4,396	79	26,044

단위 : 10억 달러

【 美 펀드 유형별 개수 】

연도	뮤추얼펀드	폐쇄형 펀드	ETF	UIT	합계
2018	9,616	503	2,057	4,917	17,093
2019	9,414	500	2,175	4,571	16,660

○ '19년 美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자산운용사**(외국사 포함)는 826개로 활발한 **인수·합병**과 자산운용 **사업 정리** 등의 이유로 '15년부터 꾸준히 감소해왔으며, ('15년 878개 → '18년 847개 → '19년 826개)

- **초대형 5개사** 운용자산 비중은 '05년 35%에서 '19년 53%로 커진 반면, 중간 규모(11위-25위) 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21%에서 16%로 줄어들며 **대형 운용사 집중** 현상 심화

【 대형운용사 운용자산 비중 】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상위 5개사	35	42	45	47	50	51	53
상위 10개사	46	55	56	58	60	61	64
상위 25개사	67	74	75	76	77	79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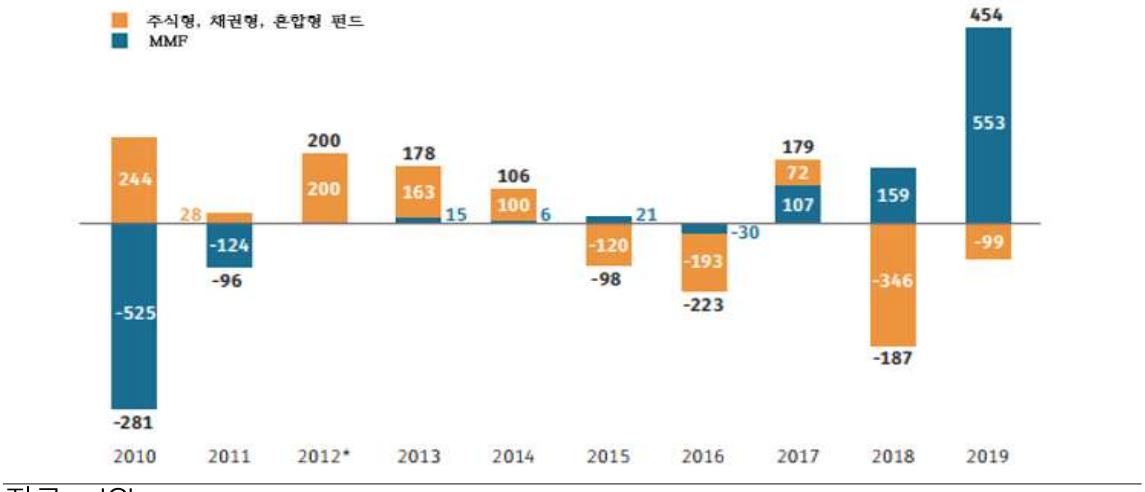
단위 : %
※뮤추얼펀드 및 ETF 운용자산 기준

3 뮤추얼펀드 현황

□ **(뮤추얼펀드* 현황)** ‘18년 1,870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던 美 **뮤추얼펀드**는 ’19년 **순유입**(+4,540억 달러)으로 **전환**하며 순자산은 21.3조 달러 기록

* 뮤추얼펀드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설립된 투자회사로 발생한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배분하는 대표적 펀드 형태를 말함

【 뮤추얼펀드 현금 흐름 】



자료 : ICI
단위 : 10억 달러

○ 특히 ‘19년에는 **단기금융상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MMF로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

* ‘18년 1,590억 달러 → ‘19년 5,530억 달러 순유입

○ 반면, **채권형 펀드**에 3,120억 달러가 **유입**되었음에도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에서 각각 3,620억 달러, 490억 달러가 **유출**되며 MMF를 제외한 뮤추얼펀드에서는 990억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

* 3,500억 달러가 빠져나간 ‘18년에 비해 유출 규모 감소

□ **(주식형 펀드)** 과거 **주식형 펀드** 유출입 추세는 세계 **주식시장** 흐름과 **동조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19년에는 **주식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주식형 펀드에서 3,620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 (比, ‘18년 2,570억 달러 유출)

【 美 **주식형 펀드 현금흐름과 세계 증시 수익률** 】

자료 : ICI, MSCI, Bloomberg

○ **(지속적 자금 유출의 원인)**

① 美 **국내 주식형 ETF 수요**가* **급증**하며 대규모 자금 이동

* ETF는 순유출을 기록한 1, 5, 8월 석 달을 제외하고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어 순유입 총 1,330억 달러 기록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뮤추얼펀드에서 3,020억 달러 유출)

② 글로벌 주식 수익률이 美 **채권 수익률**을 크게 **상회**해* 포트폴리오상 주식의 비중이 커져 대규모 **포트폴리오 재조정**(rebalancing)**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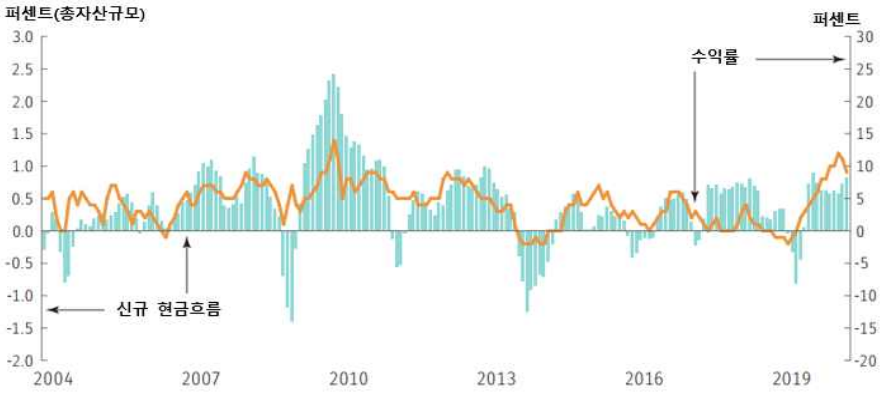
* '19년 글로벌 주식 수익률은 27%를 기록한 반면 美 채권 수익률은 9% 기록

** 주식과 채권에 60:40의 비율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경우, 주식시장 강세로 주식의 비중이 약 64%로 상승해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환매

□ **(채권형 펀드)** 美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초 대비 0.77%pt **하락**했으며 ('19년 1월 2.69% → 12월 1.92%) 평균 채권 **수익률***은 **9%** 기록

* 평균 채권 수익률은 FTSE 美 투자등급 채권지수(US Broad Investment Grade Bond Index)의 수익률로 계산

【 美 **채권형 펀드 현금흐름과 채권 수익률** 】



자료 : ICI, FTSE Russell, Bloomberg

○ **(지난 10년간 채권형 펀드로 꾸준히 자금이 유입*된 이유)**

* '10년에서 '19년까지 총 2.2조 달러 순유입

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채권형 펀드 **선호도 상승**

- 지난 10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안전자산 선호도**가 강해지며 '19년 4분기 장기 금리 상승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도 예상됐던 **대규모 유출**이 발생하지 **않음**

②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채권형 펀드 보유율을 늘리는 TDF* 등 **라이프 사이클 펀드**의 **수요**** 증가

* 대부분 주식·채권형 펀드 및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19년 TDF로 580억 달러가 유입되어 순자산규모 1.4조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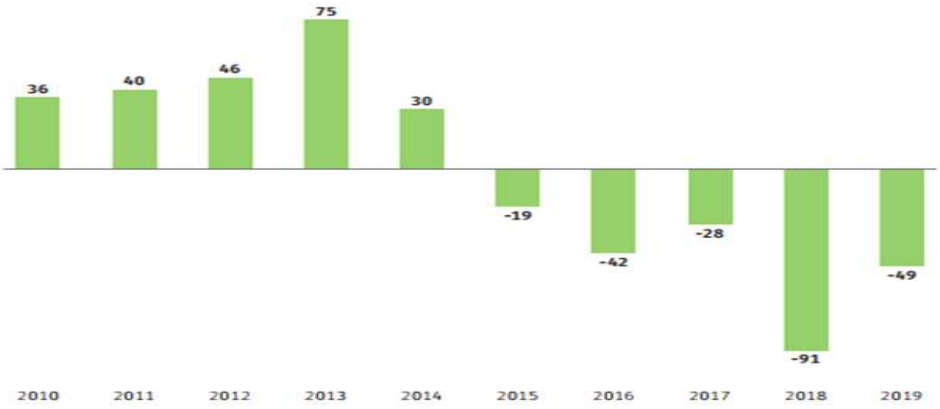
□ **(혼합형 펀드)** 과거에는 균형 잡힌 투자 방법으로 주목받았지만 **TDF**가 빠르게 **성장**하며 **꾸준히 자금 유출**

○ 美 국내외 주식, 채권, 현금, 원자재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가변형 펀드**(flexible portfolio funds)는 금융위기 직후 금융시장 하방 리스크로부터 펀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투자자 유입***이 크게 늘었으나,

* '09에서 '14년까지 총 880억 달러 순유입

○ 그 후 수년간 강세장에서 **수익률 고전**이 계속되자 지난 5년간 순환매 규모는 1,31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약세**

【 혼합형 펀드 현금흐름 】



자료 : ICI
단위 :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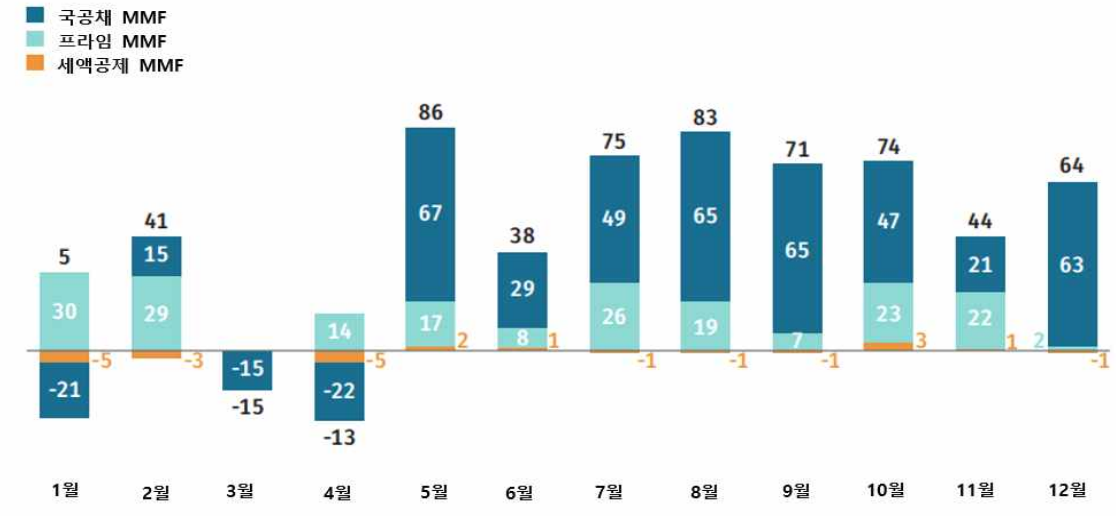
□ **(MMF)** '19년 **국공채 MMF**와 **프라임 MMF***의 수익률은 MMDA**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며** 국공채 MMF로 총 3,640억 달러, 프라임 MMF로는 총 1,980억 달러가 **새로 유입**

* 국공채 MMF와 달리 기업어음 등 일반 회사채 중심으로 운용

**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란 美 은행이 MMF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으로 은행이나 농협, 수협이 취급하는 단기 저축성예금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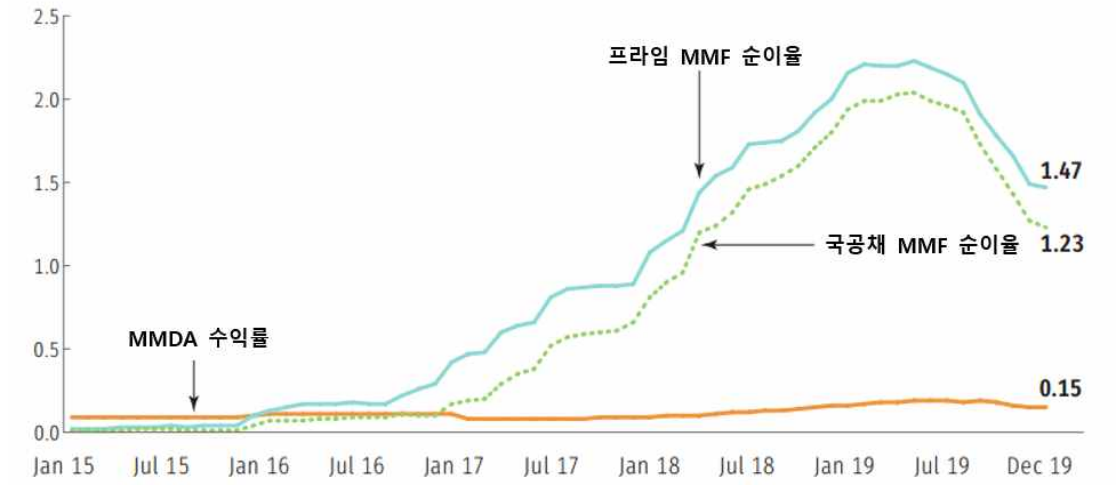
○ 美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스프레드**는 연초 24bp에서 시작해 8월 美-中 **무역 합의 불발 가능성**이 확산되며 3개월물과 10년물 간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 -50bp를 기록했으나, 이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며 연말 37bp 기록

【 '19년 MMF 현금흐름 】



자료 : ICI
단위: 10억 달러

【 MMF와 MMDA 수익률 비교 】



자료 : Crane Data, Bank Rate Monitor,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단위: 퍼센트

Ⅱ 2019 미국 펀드시장 주요 트렌드

1 인덱스 펀드 및 ETF 등 패시브 펀드의 꾸준한 성장

□ **(현황)** 자본시장에서 편리하게 시장 움직임을 따라가며 위험을 헤지 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서 ETF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19년 말 기준 ETF 순자산규모는 **전체 운용자산**의 17%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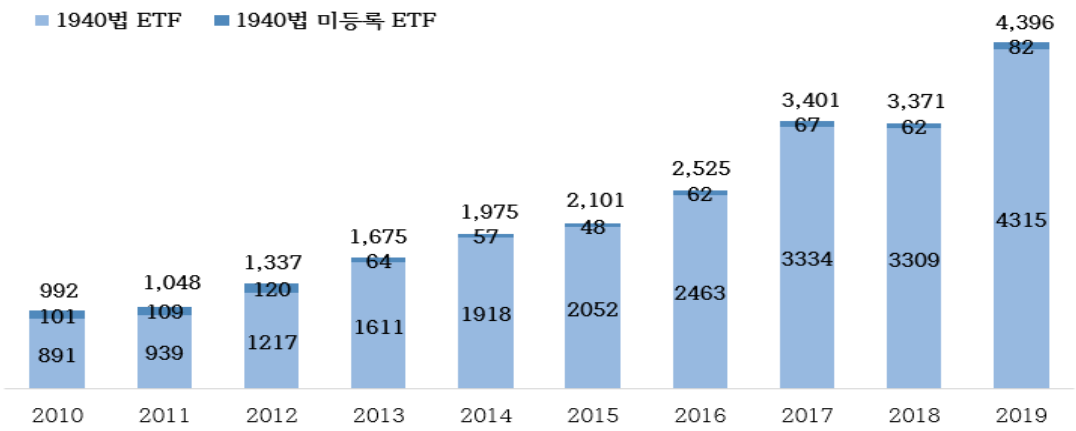
○ '19년 12월 기준 ETF는 총 2,096개로 순자산총액은 약 **4.4조 달러**였으며 **액티브 ETF***도 꾸준히 증가해 현재 320개, 순자산총액은 990억 달러에 달함

* 특정 지수를 추적하는 포트폴리오에 근거한 전통적인 ETF와는 달리 대상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가 종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ETF

【 ETF 개수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923	1,135	1,195	1,295	1,412	1,597	1,718	1,837	1,990	2,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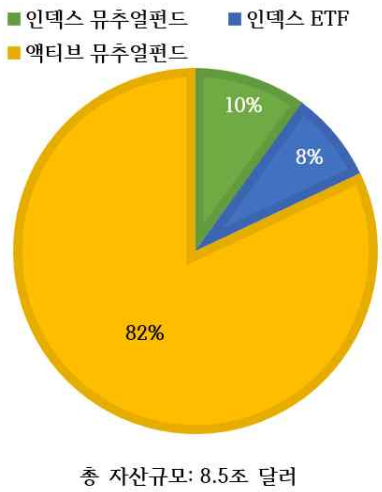
【 ETF 순자산규모 증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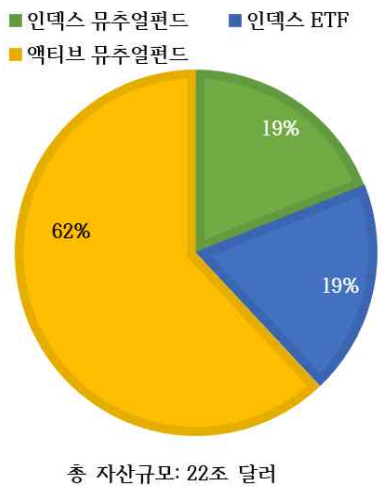
자료 : Crane Data, Bank Rate Monitor,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단위: 1억 달러
※1940법 ETF란 1940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의해 등록된 ETF 이며, 1940법 미등록 ETF는 주로 원자재, 통화 및 선물에 투자하는 ETF로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하에 펀드를 등록해 운용

【 펀드시장에서 패시브 펀드의 비중 】

【 '09년 】



【 '19년 】



자료 : ICI
※연말 순자산규모 기준

□ **(ETF 규제 완화)** SEC는 '19년 9월 신규 **ETF룰**을 도입해 ETF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개선**을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ETF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기존 증권법**하에서 ETF는 hybrid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당국의 허가 없이 **판매**가 **불가**하므로 ETF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개별 예외조치 신청*** 후 SEC의 **승인 필요**

* 1992년 이래로 SEC는 300개 이상의 예외조치(Exemptive Order)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ETF 판매를 허용했으며, 평균적으로 예외조치 발효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고 운용사는 추가적으로 약 25,000 달러의 비용이 발생되었다고 조사

- ETF룰 도입을 통해 이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ETF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즉시 시장 출시** 가능

* 포트폴리오 일일 공시, NAV, 시장 가격, 프리미엄·디스카운트 여부 등

- 모든 ETF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과거 일부 펀드운용사에게만 유리했던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 체계 구축

○ 한편 SEC는 신규 ETF를 하에서도 금지되는 non-transparent ETF*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통해 출시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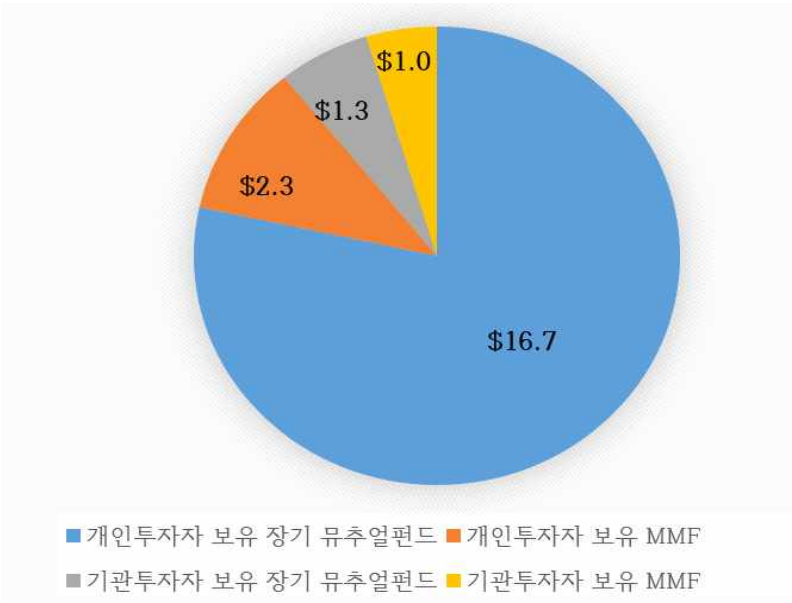
* 제한된 자산 종목에만 투자 가능하며, 투자 설명서, 웹사이트 및 마케팅 자료에 해당 상품이 전통적 ETF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함

2 뮤추얼펀드는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중산층의 대표적 투자상품化

□ **(현황)** '19년 말 뮤추얼펀드 **개인투자자 수**는 1억 180만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전체 뮤추얼펀드 자산의 89%, 장기 뮤추얼펀드*의 경우 전체 자산의 95%를 보유

* 장기 뮤추얼펀드란 MMF 등 단기상품을 제외한 일반적 투자 상품으로서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를 포함

【 개인투자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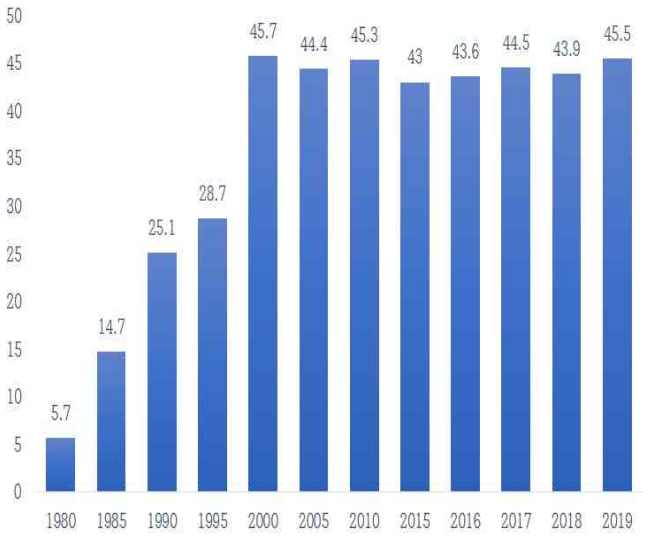


자료 : ICI
단위: 1조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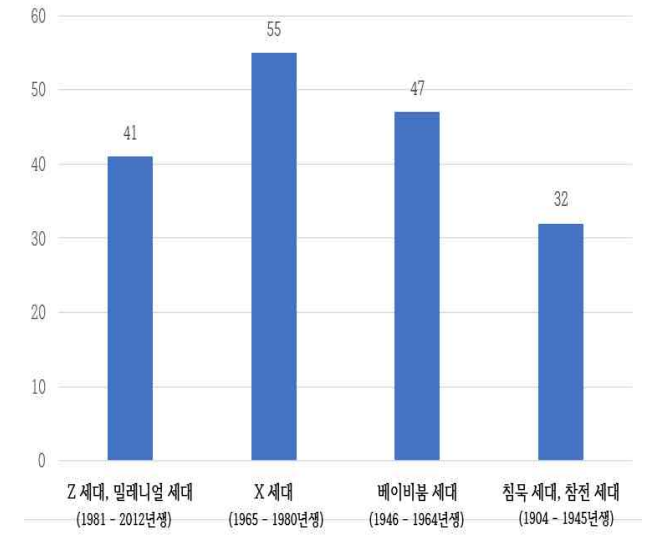
○ 또한 '19년 말 기준 전체 美 **가구**의 **45.5%**인 총 5,850만 가구가 뮤추얼펀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베이비붐 세대**(55세-73세)가 총 순자산의 51% 보유

- 뮤추얼펀드 보유 가구 중 33%는 세대주가 **X세대**(39세-54세)였으며, 34%는 **베이비붐 세대**(55세-73세)로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투자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뮤추얼펀드 보유 가구 비중 】



【 세대별 뮤추얼펀드 보유 비중 】



자료 : ICI
단위: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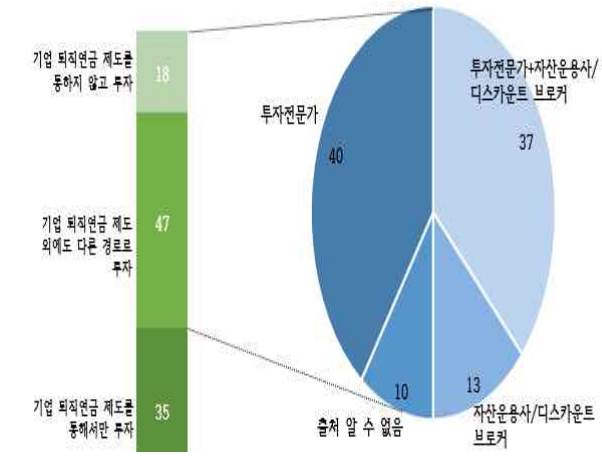
□ **(투자 경로)** 뮤추얼펀드 보유 가구의 82%는 **기업 퇴직연금 제도**(employer-sponsored retirement plan)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이중 65%는 기업 퇴직연금 제도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뮤추얼 펀드에 추가로 투자

○ 기업 퇴직연금 제도가 아닌 다른 경로로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가구의 비중이 77%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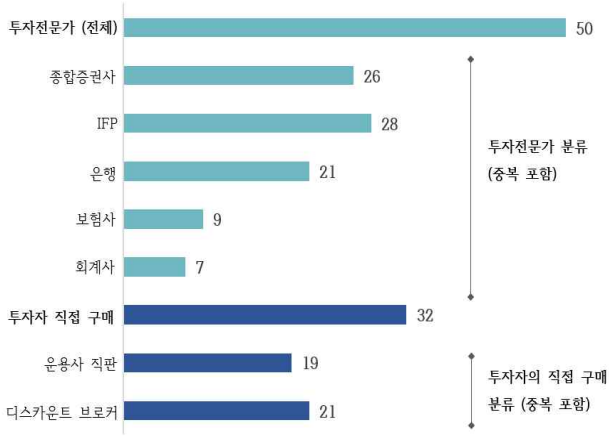
* 투자전문가란 투자자문가, 종합증권사, IFP(종합자산관리사), 은행 직원, 보험사, 회계사 등 일반투자자에게 상품 선택 등 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통칭

- 또한 이들은 펀드 최종 구매시, 50%는 **투자전문가**를 통해 펀드를 구입했으며, 약 32%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직접 구매**

【 투자 결정시 전문가 의존 비율 】



【 펀드 구입 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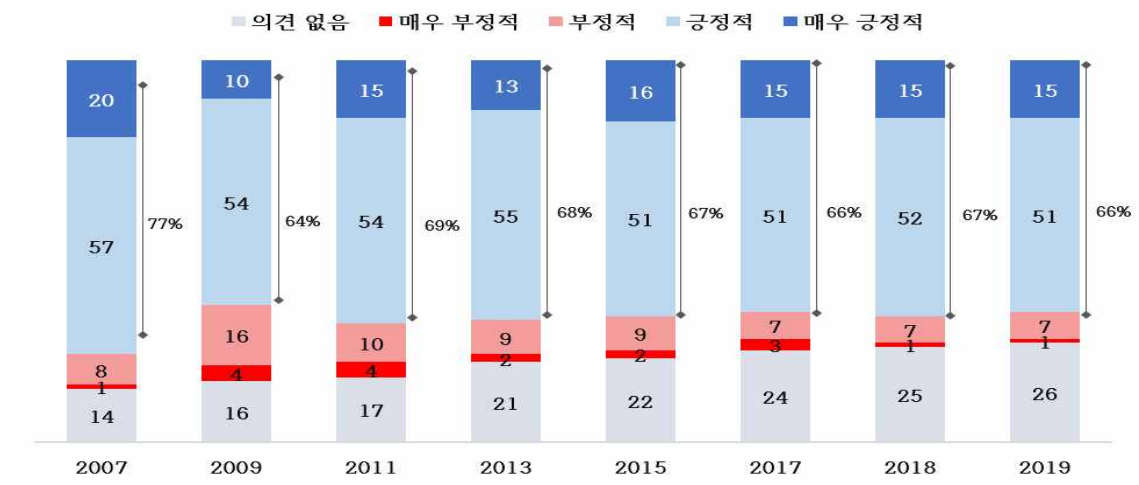
자료 : ICI
단위: 퍼센트

※ 디스카운트 브로커란 종합증권사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단순히 주문만 받아 처리하는 증권사

□ (투자자 특징)

○ **(자산운용사에 대한 높은 신뢰도)** 뮤추얼펀드 개인투자자 설문조사 결과, '19년 자산운용사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66%로 대체로 펀드산업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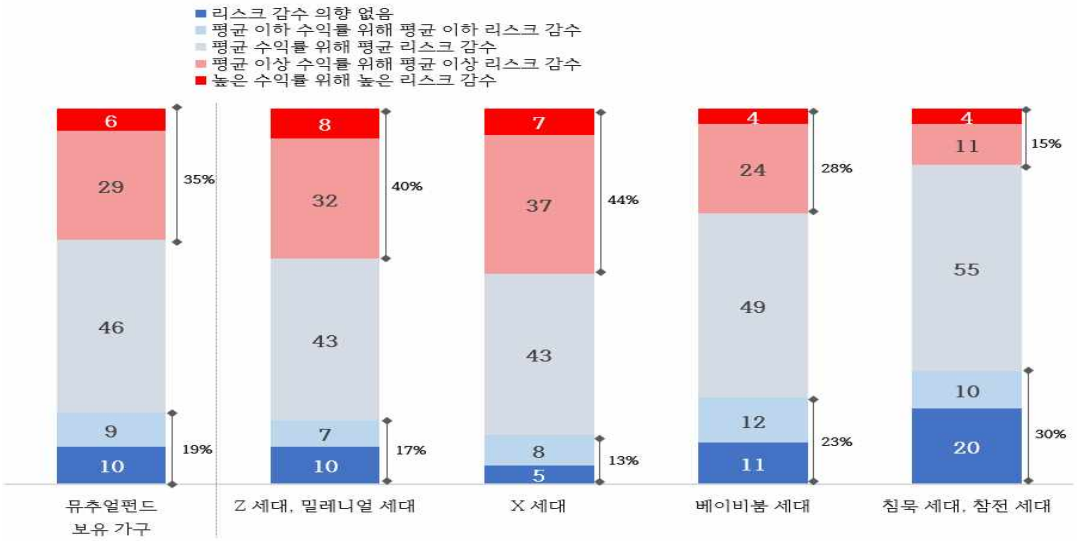
【 뮤추얼펀드 산업 인식 조사 】



자료 : ICI
단위 : 퍼센트

○ **(리스크 감수 성향)** 투자 리스크 성향 설문조사 결과 뮤추얼펀드 투자자 중 35%는 **평균 이상의 투자 리스크**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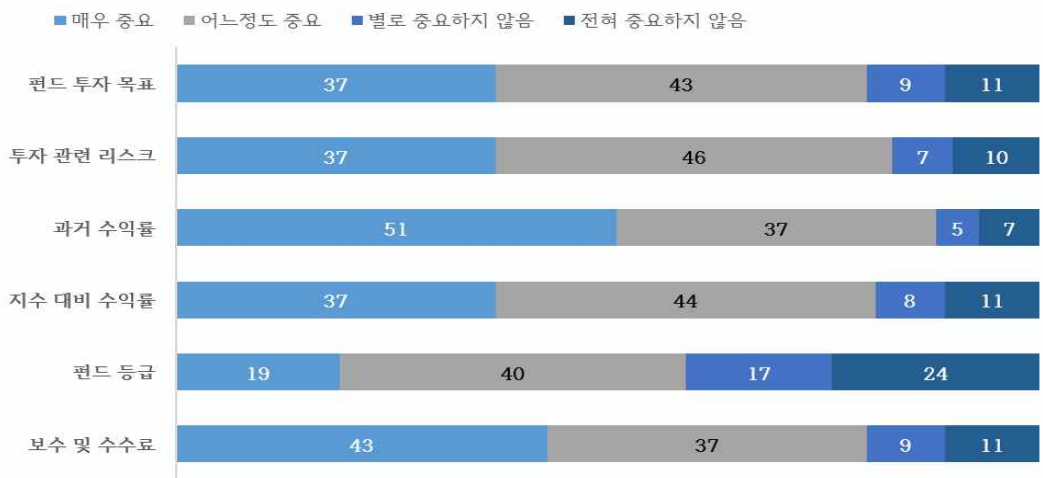
【 리스크 성향 설문조사 】



자료 : ICI
단위 : 퍼센트

○ **(펀드 투자시 고려 사항)** 대부분의 투자자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만, 그 중에서도 펀드의 **투자 목표**, 관련 **리스크** 및 **과거 수익률**을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

【 뮤추얼펀드 투자시 고려사항 】



자료 : ICI
단위 : 퍼센트

○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 스냅샷)**

- **(특징)** 약 51세 기혼(또는 동거중) 세대주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100,000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림

- **(투자 성향)** 가계 금융자산 25만 달러 中 약 15만 달러를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IRA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으며, 4개 정도의 **주식형 펀드**에 투자

- **(투자 목표)** 이들은 **노후자금 마련**을 필수 목적으로 하며, 비상자금 마련과 세금혜택을 위해서도 투자하며, 자녀 교육비 목적으로도 일부 투자

【 2019년 뮤추얼펀드 보유 개인투자자 성향 】

투자자 특징
· 뮤추얼펀드 보유 세대주 나이 중간값은 51
· 68%는 기혼 또는 동거중
· 54%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 77%는 고용된 상태 (정규직·비정규직)
· 중위 가계소득 100,000 달러
투자 성향
· 가계 금융자산 규모 중간값은 250,000 달러
· 가계 뮤추얼펀드 자산 규모 중간값은 150,000 달러
· 67%는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뮤추얼펀드에 투자
· 65%는 IRA 가입자
· 84%는 DC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
· 보유 뮤추얼펀드 개수 중간값은 4개
· 88%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
투자 목표
· 92%는 노후 자금 마련
· 50%는 비상 자금 마련
· 48%는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
· 24%는 교육비 마련

3 퇴직연금 비중 증가

□ (펀드시장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

○ '19년 말 美 자산운용사는 **가계 금융자산**의 23%를 운용

- 자산운용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노후 대비*** 목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

* '19년 미 펀드 투자자 92%는 투자 목표 중 하나가 노후자금 마련이라고 답했으며, 73%는 노후준비가 가장 중요한 투자 목표라고 답함

** 확정기여(DC)형은 전체 적립금의 58%를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며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44%를 뮤추얼펀드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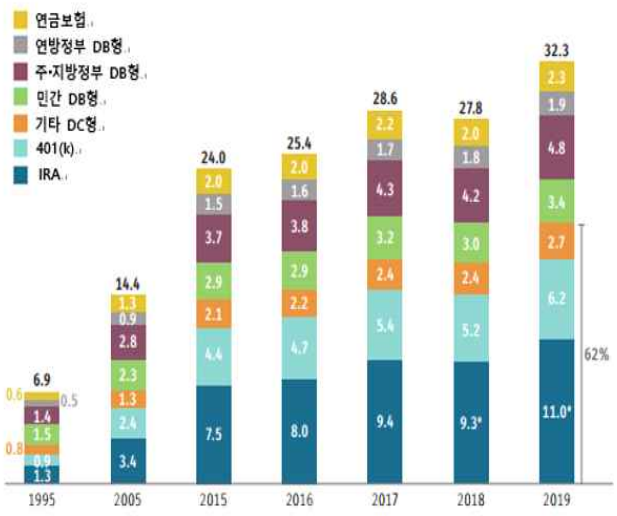
○ 또한 펀드 투자자의 63%는 펀드를 **처음 구입**하게 되는 계기가 **기업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서라고 답했으며, 뮤추얼펀드 보유 가구 중 82%*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펀드에 투자

* 투자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기업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만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았음

【 은퇴자산 구조 】

자료 : ICI

【 은퇴자산 구성 】



단위: 1조 달러

□ **(은퇴자산에서 DC형과 IRA 비중 증가)**

○ '19년 말 **기업 퇴직연금**(DB형·DC형)과 **IRA 규모**는 총 32.3조 달러에 달했으며* 그 중 DC형과 IRA가 총 은퇴자산의 62%를 차지

* '18년 말 대비 16.4% 증가

- **저소득가구**의 경우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었지만,
- 사회보장연금 **의존도**가 **낮은 중산층 이상**의 경우, 기업 퇴직연금 제도 및 IRA의 **중요성***이 더 커짐

* 美 전체 가구의 63%(8,100만 가구)는 기업 퇴직연금 또는 IRA에 가입했다고 답함

○ 지난 30년간 DC형 퇴직연금의 자산 규모는 DB형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전체 기업 퇴직연금(DB형·DC형)에서 DC형의 비중은 '89년 30%에서 '19년 말 47%로 증가

□ **(401(k) 제도 투자 옵션)** 미국의 대표적 DC형 퇴직연금인 401(k)* 가입자는 **주식형** 펀드(국내·해외) 및 **채권형** 펀드(국내)에 주로 투자

* 회사와 개인이 봉급의 일정 비율을 은퇴 시점까지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제도. 일정한도 내 소득공제와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상 지원이 많고 '09년부터 자동가입 제도 시행으로 가입 급증

○ 401(k) 채택 기업 대부분은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형 펀드**(10개)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채권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는 평균 3개씩 포함

○ TDF 투자자 비율도 꾸준히 늘어 현재 401(k) 채택 기업의 80%가 포트폴리오에 **평균 9개**의 TDF를 포함하고 있음

□ **(401(k) 가입자 투자 성향)** 노후 대비라는 공통된 투자 목표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연령대**에 따라 **자산 배분** 방식 **상이**

○ ’16년 말 20대 가입자는 자산의 29%를 **주식형** 펀드, 48%를 **TDF**에 투자한 반면 60대 가입자는 자산의 38%를 **주식형** 펀드, 18%를 **TDF**에 투자

- 투자자 연령에 따라 투자 유형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TDF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20대 가입자는 **주식**에 전체 자산의 **80%**를 투자했으며 60대는 자산의 **55%**를 주식에 투자

4 ESG 시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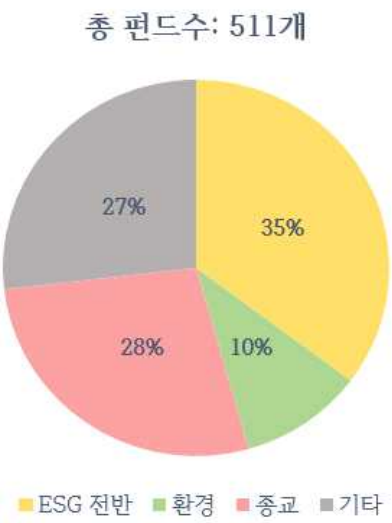
□ **(개요)** ESG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한 뮤추얼펀드와 ETF는 ‘19년 말 기준 **총 511개**로 순자산규모는 **3,214억 달러**에 달함

【 ESG 투자 전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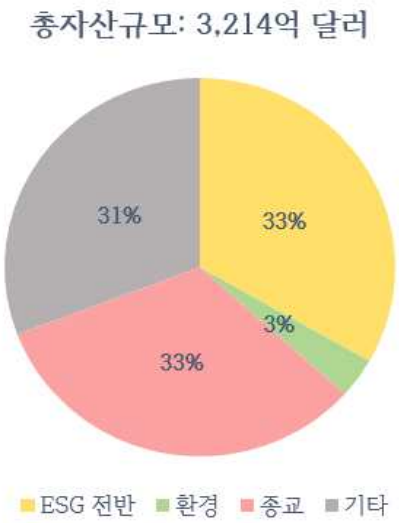
전략	분류 기준
ESG 전반	· 환경, 사회, 거버넌스 세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펀드 또는 펀드 명에 “ESG”가 포함되는 펀드
환경	· 환경 요소만 집중적으로 고려하는 펀드 · 펀드 명이나 전략에 대체 에너지,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환경 솔루션, 저탄소 등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펀드
종교	· 특정 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펀드
기타	· ESG 세 요소를 모두 고려해 투자하지는 않으면서 몇 가지 요소에 집중해 투자하는 펀드

○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美 ESG 펀드(뮤추얼펀드와 ETF)를 분석했을 때, **ESG 전반**에 집중하는 펀드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180개, 순자산규모 1,069억 달러) **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펀드의 비중이 두 번째로 컸음(141개, 순자산규모 1,046억 달러)

【 펀드 수 분석 】



【 자산규모 분석 】



자료 : ICI

□ **(ESG 펀드의 지속적 성장)** '19년 EGS 전략을 기반으로 한 뮤추얼펀드 및 ETF로 유입된 자금은 **전년대비 4배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60억 달러 기록 (比, '18년 약 55억 달러 유입) (Morningstar)

○ ESG **수요 급증** 추세에 맞춰 신규 출시되는 ESG 펀드 수도 크게 늘어 향후 3년간 **약 200개의** ESG 펀드가 **새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

5 운용보수 및 수수료 감소

□ **(운용보수 감소)** 주식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액티브 펀드가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저비용** 패시브 펀드로 자금이 **이동***하여 펀드시장 전반에서 **운용보수**가 **감소**

○ '18년 기준 패시브 펀드는 전체 뮤추얼펀드와 ETF 운용자산(AUM)의 36%를 차지했으며 '25년 이 수치는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PwC)

【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 비교 】

자료 : PwC, I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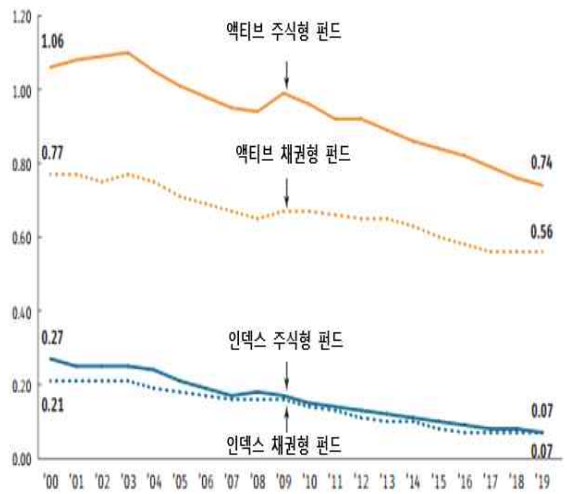
□ **(총보수비용비율 감소)** 뮤추얼펀드의 평균 자산 대비 보수비용 비율(TER)은 **지속적***으로 **감소**

* 주식형 뮤추얼펀드의 보수비용은 '00년 100달러당 99센트였지만 '19년 말 기준 47% 줄어 100달러당 52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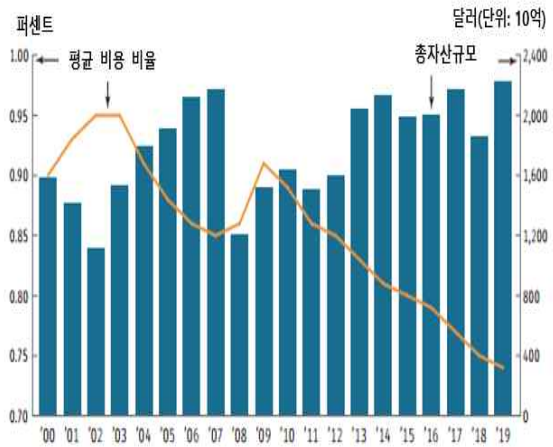
○ 운용보수가 적은 ETF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보수비용비율 감소에 일조했지만,

○ 연금 자산의 증가로 401(k)등에 투자되는 **수수료 없는**(no-load) **펀드**의 확대 및 전체 뮤추얼펀드의 **자산 규모**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보수비용 비율이 줄어든 것도 주요 원인

【 펀드별 비용비율 변화 】



【 자산규모 대비 비용 변화 】



자료 : ICI

별첨 1 2019 美 펀드시장 개요 (요약)

전체 글로벌 개방형 펀드 순자산규모	54.9조 달러
미국	25.7조 달러
유럽	18.8조 달러
아시아 태평양	7.3조 달러
그 외 지역	3.1조 달러
美 전체 펀드시장 순자산 규모	**26조 달러**
뮤추얼펀드	21.3조 달러
ETF	4.4조 달러
폐쇄형 펀드	2,780억 달러
UIT(단위투자신탁)	790억 달러
전체 자산 중 美 펀드 보유 자산 비중	
美 국내 주식	32%
자국민 보유 美 회사채 및 외국채권	21%
美 국공채	14%
美 지방채	29%
美 CP	25%
펀드 보유 가구	
펀드 보유 가구 수	5,970만 가구
펀드 개인투자자 수	1억 390만명
펀드 보유 가구 비중	46.4%
뮤추얼펀드 보유 가구 뮤추얼펀드 자산규모 중간값	150,000 달러
보유 뮤추얼펀드 개수 중간값	4개
美 퇴직연금 시장	
기업 퇴직연금과 IRA 총 자산규모	32.3조 달러
세액공제 연금 계좌 보유 가구 비중	63%
DC형 퇴직연금과 IRA 자산 중 뮤추얼펀드 규모	9.9조 달러

별첨 2 전세계 개방형 펀드 순자산규모

【 국가별 순자산규모 】

단위 : 100만 달러

	2014년 말	2019년 말
전세계	**38,141,673**	**54,882,571**
미주	**20,077,066**	**28,640,793**
아르헨티나	15,630	13,796
브라질	989,542	1,333,617
캐나다	1,047,840	1,412,987
칠레	44,166	59,089
코스타리카	2,092	2,610
멕시코	119,504	123,269
트리니다드토바고	7,121	7,697
미국	17,851,171	25,687,728
유럽	**13,804,517**	**18,808,011**
오스트리아	165,084	182,076
벨기에	100,790	108,416
불가리아	496	913
크로아티아	2,058	3,409
키프로스	N/A*	3,578
체코	5,746	15,123
덴마크	120,844	151,253
핀란드	86,397	110,191
프랑스	1,940,490	2,197,472
독일	1,842,547	2,488,705
그리스	5,256	6,328
헝가리	15,980	14,591
아일랜드	2,003,956	3,424,577
이탈리아	217,363	239,513
리히텐슈타인	45,792	60,130
룩셈부르크	3,757,624	5,301,228
몰타	4,423	3,658

네덜란드	801,397	960,230
노르웨이	112,223	151,216
폴란드	34,177	40,205
포르투갈	15,786	14,839
루마니아	4,932	5,263
러시아	1,288	N/A
슬로바키아	6,514	8,329
슬로베니아	2,550	3,279
스페인	274,072	340,883
스웨덴	283,683	412,641
스위스	436,431	653,328
터키	15,301	17,294
영국	1,501,308	1,889,343
아시아 태평양	**4,113,616**	**7,256,321**
호주	1,610,811	2,201,142
중국	749,708	1,890,624
대만	58,049	128,498
인도	136,834	345,602
일본	1,177,233	2,064,166
한국	330,168	538,215
뉴질랜드	41,559	78,447
파키스탄	4,156	4,018
필리핀	5,098	5,609
아프리카	**146,474**	**177,446**
남아프리카공화국	146,474	177,446

* N/A는 집계가 되지 않거나 별도 통계가 없는 경우
출처 : IIFA